

朴珪壽, 「關衛新編評語」

김명호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박규수와 그의 시대

박규수(朴珪壽, 1807~1877)는 한양에서 출생했다. 그의 조부는 조선 후기 실학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열하일기(熱河日記)』를 남긴 연암 박지원(燕巖朴趾源)이다. 청소년 시절 부친 박종채(朴宗采)로부터 연암의 실학을 전수받는 한편, 당대의 우수한 문인 학자였던 외종조 유희(柳詠)와 척숙 이정리(李正履)·이정관(李正觀) 형제의 가르침을 받았다. 순조 말년인 성균관 유생 시절 자신의 첫 저작인 『상고도회문의례(尙古圖會文義例)』를 진상하여, 당시 국정을 대리하던 효명세자(孝明世子: 후에 익종)의 각별한 인정을 받았다. 효명세자 급서 이후 장기간 은둔하여 학문에 전념했다. 이 시기에 사대부의 의관제도 개혁방안을 논한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를 완성했다.

1848년(헌종 14) 증광시(增廣試)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했다. 부안 현감 시절에 천문관측과 세계지리 파악을 겸한 지세의(地勢儀)를 제작했다.

1861년(철종 12)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북경 점령으로 인해 열하(熱河)로 피신한 청의 함풍제를 위문하기 위한 사절단의 부사로서 중국을 다녀왔다. 이듬해 경상도 진주에서 농민항쟁이 발발하자, 사태수습과 진상조사를 위한 안핵사(按覈使)로 파견되었다.

홍선대원군이 집권한 고종 즉위 초에 증용되어 예조판서 등을 거쳐 평안 감사가 되었다. 1866년 대동강에 무단 침입한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격침시켰다. 그 뒤 대제학과 우의정 등을 역임했다. 1872년 청 동치제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의 정사로서 재차 중국을 다녀왔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신정부가 보낸 서계(書契)의 접수 문제로 외교분쟁이 빚어지자 대원군과 맞서 서계 접수를 주장하고, 나아가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일수교와 문호개방을 성사시키고자 진력했다. 문집으로는 그의 제자 윤양 김운식(雲養 金允植)이 편찬한 『환재집(暎齋集)』이 있다.

2. 1848년경에 쓴 문제적 저술

「벽위신편평어(關衛新編評語)」는 박규수의 벗인 윤종의(尹宗儀)가 편찬한 『벽위신편(關衛新編)』을 평한 글이다. 윤종의의 『벽위신편』은 천주교를 배격하는 척사론과 해외사정 및 해방책(海防策)에 관한 글들을 모아 전 7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그중 제7권 『사비시말(查匪始末)』의 권말에 수록된 「벽위신편총설(關衛新編總說)」은 윤종의가 자신의 척사론을 피력한 글로, 1848년 음력 3월에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원래 이 글에 대한 평어로서 그 말미에 수록되었던 점으로 보아, 박규수의 「벽위신편평어」는 『벽위신편』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인 「벽위신편총설」을 논평한 글임을 알 수 있으며, 1848년경에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1861년 중국 여행에 나선 박규수는 「벽위신편평어」를 포함한 자신의 글 몇 편을 뽑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북경에서 사권 중국 문서들

에게 보이고 그들의 평어를 받아 왔다. 이것이 현재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박환재문(朴煥齋文)』(1책)이다. 『박환재문』에 수록된 「벽위신편평어」는 윤종의의 『벽위신편』에 수록된 것과 지구상의 차이가 적지 않다. 이는 1848년경 집필한 이후 중국 여행에 앞서 이 글을 필사하면서 수정을 가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벽위신편평어」는 모두 1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①은 윤종의의 「벽위신편총설」에 대한 총평이다. 윤종의의 척사론이 청의 항세준(杭世駿)·양광선(楊光先)의 척사론에 못지않다고 칭찬했다. 단락 ②~⑦은 천주교를 주로 교리 차원에서 비판했다. 천주교를 극히 미개한 수준의 종교로 간주하고, 천주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천주강생설’을 황당무계한 것이라 보았다. 또 천주교의 ‘천주가 유교의 ‘상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리고 서양의 천문역법이 중국보다 발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고대 중국의 천문역법이 서양에 흘러들어 가서 발전한 것일지 모르며, 서양인들이 천문역법에 밝다고 해도 유교와 같은 ‘대도(大道)’를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단락 ⑧~⑫는 천주교의 교파 분열과 상쟁의 역사에 비추어 천주교의 침략성을 폭로했다. 서양의 종교(기독교)에는 천주교·개신교·그리스정교의 삼대 교파가 있어, 서로를 사교로 간주하고 공격·배척한다고 했다. 이러한 교파 분열이 갈수록 심해져 마침내 기독교가 종식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또 서양 각국의 역사를 보면 침략과 살육이 자행되고 있을뿐더러 종교가 침략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천주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 위에서 박규수는 천주교 대책의 하나로 중국에서 관청을 특설하여 척사서를 대대적으로 간행·보급할 것을 제안했다. 즉 마카오에 진출한 서양인들로 하여금 모든 서학서를 헌납하고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게 한 다음, 관청을 개설해서 각 지역별로 널리 발탁된 유생들이 그곳에서 한역서학서를 연구하여 천주교 교리를 명쾌히 논박한 저서를 완성하게 하고 이를 천하에 두루 보급하여 민중을 계몽한다면, 천주교는 저절로 받을

붙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단락 ⑬은 종교를 통한 동서교섭의 장래에 대해 소견을 피력했다. 중국의 유교 서적들이 해외의 싱가포르와 말라카(Malaca)로 계속 수출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이를 번역하거나 학습하는 서양인이 대단히 많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양인들이 장차 더욱 교묘한 교리를 개발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 유교 서적을 오랫동안 학습한 결과 그에 감화되어 동양의 '정도(正道)'에 귀의하는 서양인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요컨대 동양의 사상적·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 위에서 동서교섭이 초래할 장래의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표명했다.

「벽위신편평어」는 일본 텐리대학 부설 조선학회에서 간행한 『조선학보』 제87집(1978)에 『박환재문』의 일부로서 영인·소개된 바 있으며,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영인·출판한 『벽위신편』(1990)에도 수록되어 있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환재총서(瓊齋叢書)』(1996) 제5권에도 영인·수록되어 있다.

3. 개화사상을 향한 사상적 발전

박규수는 한국근대사에서 개화사상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의 조부가 다름아닌 연암 박지원이요, 그의 문하에서 김옥균·김윤식·박영효·유길준 등과 같은 개화파가 배출되었으므로, 박규수는 실학을 개화파에게 전수한 대표적인 인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박규수가 조부의 실학을 충실히 계승했으며, 나아가 개화사상을 향한 사상적 발전을 보여 주었던가 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벽위신편평어」는 1840년대 이후 박규수의 사상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 주는 문체적인 글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한 1840년대는 동아시아가 서양 열강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포섭되어 가는 분기점이었

다. 그때부터 중국과 일본에서는 대외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해방책과 내정 개혁을 추구하기 시작하거니와, 박규수는 같은 시기의 조선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상적 모색을 보여 준 선각자였다. 「벽위신편평어」는 서세동점의 새로운 시대적 추세에 직면하여 박규수가 전대의 실학을 발전적으로 극복하여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벽위신편평어」에서 박규수는 주로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에 의거해서 천주교를 비판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항세준과 양광선의 척사론은 『해국도지』에 소개되어 있으며, 서양의 종교에 천주교·개신교·그리스정교의 삼대 교파가 있다는 것도 『해국도지』를 통해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서양 각국의 역사를 논하면서 참고했다고 밝힌 『사주지(四洲志)』 역시 『해국도지』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있는 한역서학서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 서적을 번역·학습하는 서양인이 많다고 한 것은, 영국 개신교 선교사 모리슨(R. Morrison) 등이 말라카에 영화서원을 세우고 미국 개신교 선교사 브리지먼(E. Bridgman)이 싱가포르에 견학서원(堅夏書院)을 세워 유교 서적과 기독교 성경 등을 번역·간행했던 사실을 가리키는데, 이는 바로 『해국도지』에서 전하고 있는 최신 정보였다.

『해국도지』 초간본은 간행 직후인 1845년 이미 조선에 유입되었지만, 적어도 1850년대 초반 무렵까지는 김정희(金正喜)·최한기(崔漢紀) 등 극소수의 인사들만 『해국도지』에 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벽위신편평어」에서 박규수가 암암리에 『해국도지』를 원용한 사실은 그가 국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국도지』를 읽고 그로부터 영향받은 인물에 속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벽위신편평어」는 천주교와 서양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천주교의 미신성과 침략성을 폭로하고, 나아가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 점이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박규수가 종래의 척사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천주교 교리에 대한 사변적 비판 차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해국도지』와 같은 최신 서적을 일찍부터 접함으로써 남다른 식견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박규수는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청초의 저명한 역산가(曆算家)인 매문정(梅文鼎)의 설을 끌어 왔다. 천주교의 '천주'란 하늘의 주재자이므로 '주천(主天)'으로 표현해야 옳은데 서양의 언어가 중국어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는 까닭에 그렇게 일컫는다고 한 것은 매문정의 설에 의거한 주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규수는 서양의 우수한 천문역법이 실은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매문정의 설을 지지했다. 이러한 '서학중원설'은 청의 강희제가 제창하고 매문정이 적극 호응하여 학설로서 구체화한 것인데, 그 이후 청말 양무운동과 변법운동 시기까지 유행했다.

또한 박규수는 서양의 미개한 종교인 천주교에 비해 동양의 '도', 즉 유교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확신했다. 기술자가 철학을 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인들이 천문역법에 밝다고 해도 '대도'를 알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천주교에 대한 유교의 우월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공개적 연구와 계몽을 통한 교화정책이 일방적인 탄압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를 상정한 제안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교화정책이 조선에서도 시행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가 한다.

서양인들이 말라카·싱가포르 등지에 학교 겸 인쇄소를 세워 한문과 중국어를 학습하고 중국 서적들을 번역·간행하고 있다고 한 것은 방대한 분량의 『해국도지』 중 겨우 몇 군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희귀하고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박규수는 이러한 정보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처럼 서양인들이 종교적 침투를 위한 사전 준비로 중국 서적을 열심히 학습하는 현상에 대해 『해국도지』에서 위원이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달리, 박규수는 다분히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장기간의 동서교섭을 통해 서양인들이 감화되어 유교에 귀의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표명했던 것이다. 이 역시 천주교에 대한 유교의 우월성을 확신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박규수는 동양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 위에서 서양과의 교섭에 진취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대응에서 개화

사상의 한 갈래인 이른바 동도서기론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 박규수는 실학파의 후예로서 조선후기 실학의 성과를 누구보다 충실히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여건 속에서 동도서기론의 맹아로 평가할 수 있는 사상적 발전을 보여 준 그 시대의 선각자였다. 「벽위신편평어」는 위원의 『해국도지』와 매문정의 서학중원설의 영향 아래 실학에서 개화사상으로의 발전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어, 한국근대사상사연구에서 더욱 주목되고 거듭 음미되어야 할 글이라 할 수 있다.